

# 안면읍의 어제와 오늘

박철희 |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장

## 1. 위치 및 지리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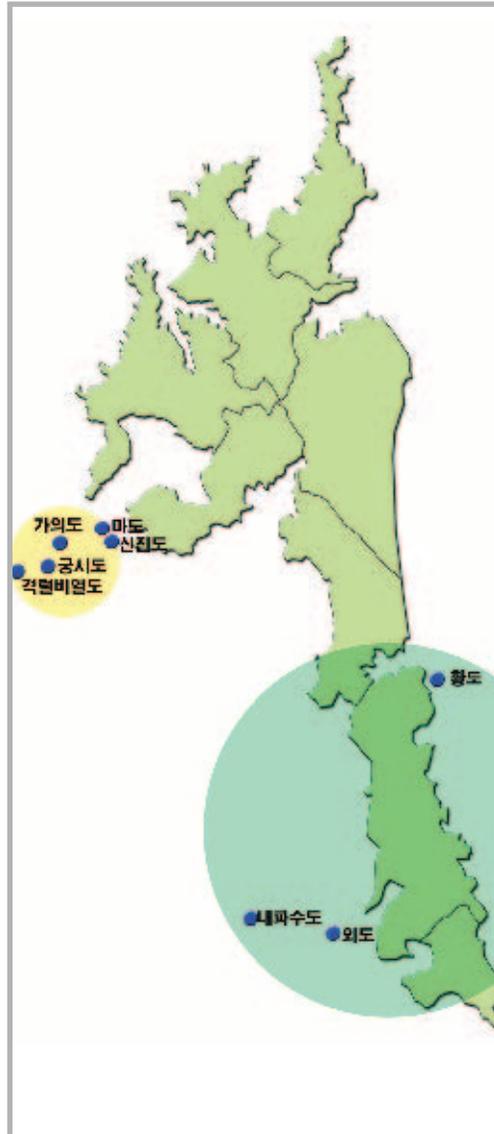
안면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안면읍은 태안군 제2의 도시로서 태안군의 해양관광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읍 관내에는 아름다운 22개의 무인도와 4개의 유인도서가 있다.



〈그림 1〉 안면읍 전경



〈그림 2〉 태안군 안면읍의 지리적 위치



구 분	주요 섬	위 치
안면도권	황도	안면읍 황도리
	외도	안면읍 승언리
	내파수도	안면읍 승언리
근흥권	가의도	근흥면 가의도리
	격렬비열도	근흥면 가의도리
	공시도	근흥면 가의도리
	난란도	근흥면 가의도리
	마도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도	근흥면 신진도리

〈태안군 및 안면읍의 주요관광 섬〉

## 충남의 도시 20 - 안면읍

인구 1만의 소도시로서 안면읍의 소재지는 승언리 1015에 자리하고 있는데, 읍 면적은 91.5㎢(군 전체면적의 18.1%)로, 행정 구역상으로 6개 법정리에 178개 반과 127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인구는 4,548세대에 9,780명(2009년 기준)으로 과거5년간('04~'09) 연평균증가율은 0.44%이며, 인구밀도는 106.97명/㎢로서 군내에서 세 번째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안면읍은 본래 곶(串)인 반도로서 육지인 남면과 연속되어 있었는데, 삼남지역의 세곡조운(稅穀漕運)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선조의 인조 때에 지금의 안면읍 창기리와 남면의 신온리 사이를 절단하므로써, 이 때부터 안면곶이 섬이 되어 안면도(安眠島)라 호칭하게 되었다.

〈태안군과 안면읍의 주요 항·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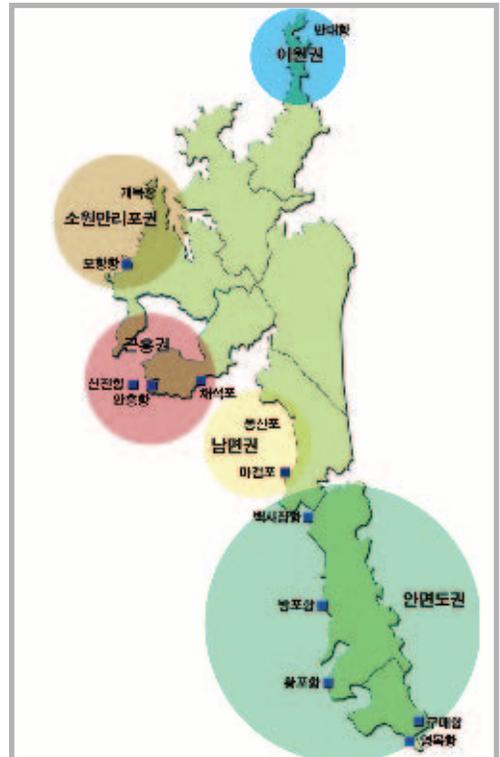
구 분	항·포구	위 치
안면도권	백사장항	안면읍 창기리
	방포항	안면읍 승언리
	영목항	고남면 고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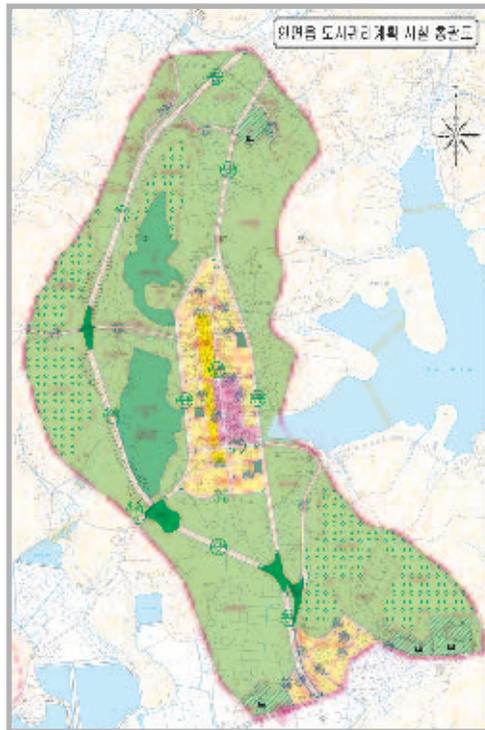


〈백사장항 전경〉



〈방포항 전경〉





안면읍의 역사를 보면, 안면읍은 본래 태안군의 안상면과 안하면 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지난 1914년 그들이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두개면을 병합하여 면명을 다시 안면면이라 개칭해서 서산군의 관할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안면면은 이렇게 서산군에 편입되어 66년간 내려오다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 10050호에 따라 안면면이 안면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 11075호에 따라 보령군 오천면 삼시도리의 관할이었던 내파수도, 외파수도, 외도가 안면읍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안면읍의 면적이 90.99km<sup>2</sup>로 확장되었다. 또한 1989년 1월 1일 법률 제 4050호에 의해 태안군이 복군됨에 따라 다시 태안군의 관할 지역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충남의 도시 20 - 안면읍

안면읍의 지형을 살펴보면 태안의 진산인 백화산의 줄기가 남면을 지나 안면읍으로 늘어서면서 창기리에서 국사봉(107m)을 이루어 놓고, 다시 승언리에 이르러 당산(堂山)을 이루었다. 이 당산은 안면읍의 진산인데 여기서 다시 신야리로 뺏어내려 국사봉(109m)을 이룩하여 놓았다. 이와 같이 안면읍의 국사봉을 제외한 산지의 대부분이 50-60m 이하로 이루어진 야산의 구릉 지대로 되어 있어 대규모의 목장과 또는 농장지로 이용되고 있다.

자연 문화 자원으로는 안면도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138호), 황도봉기풍어제(충남무형문화재 12호), 내파수도(충남기념물 64호), 승언리 상여(충남문화재자료 315호) 등의 문화재가 있으며, 다양한 전설이 역사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 안면읍의 전설

1. 거북이 용으로 승천한 용해(龍海)
2. 무학대사의 절이 있었다는 첫개(寺浦)
3. 세곡선을 파선시킨 쌀 석은 여(暗礁)
4. 호랑이를 쫓아낸 안면도 당산(당집)
5. 남편을 그리다 돌이 된 할미바위
6. 여덟 봉우리에 학이 문힌 팔학골
7. 세 자매의 무덤 삼봉
8. 꿈속 노승이 이름 진 국사봉(國師峰)
9. 불에도 안탄 뱀
10. 구렁이가 강도 잡은 구렁이고개(구렁재)
11. 용천골의 용굴
12. 말운들의 흰죽
13. 호랑이를 쫓아낸 당이 있던 정당리의 닥재
14. 신부의 혼이 깃든 각시 바위
15. 창터와 불탄개
16. 어부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선바위

특히 안면읍의 송림(松林)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물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목재는 일찌기 고려조 말기에서부터 조선조로 들어오면서는 대궐이나 사찰 등을 짓기 위해 경향 각지로 반출되었다 하니 그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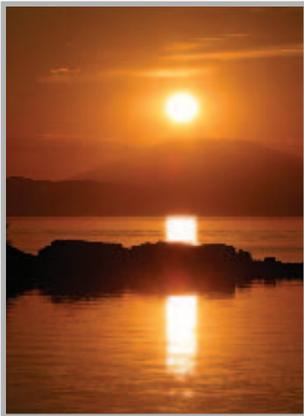
## &lt;안면읍의 대표적인 자연휴양림과 해안공원&gt;

구 분	면 적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주 요 전 경
안면도 자연휴양림	1.75km <sup>2</sup>	태안군 안면읍 승연3리	숲속의 집 야영장, 전망대산림전시관, 수목원 체력단련장, 주차장	
꽃 지 해안공원	0.2km <sup>2</sup>	안면도 꽃지해안	휴게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야외정원, 실내전시관, 주차장	

 ※ 자료 : <http://www.taeon.net/tour/rest.htm>    <http://cheongsan.org/>

## &lt;안면읍의 아름다운 낙조 및 일출&gt;

구 분	특 징
황 도 해오름	서해에서 해오름과 해넘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안면 황도의 해오름. 동해의 힘찬 해오름과 달리 태안의 해오름은 단아하고 엄숙함
꽃지해변 해넘이	서해안 3대 낙조로 꼽히며 KBS 주말드라마 '저 푸른 초원 위에' 에서 꽃다리와 해변의 해넘이가 주인공의 사랑을 나누는 배경으로 소개됨

 ※ 자료 : [http://tour.taeon.go.kr/sub/theme\\_sun.asp](http://tour.taeon.go.kr/sub/theme_sun.asp)


&lt;꽃지해변 낙조 및 일출 장관&gt;

## 충남의 도시 20 - 안면읍

천혜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맑은 물, 기암절벽(할미, 할아버지 바위) 등 절경을 자랑하는 해수욕장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광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9국제꽃박람회와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자연친화적 Pine Coast 개발로 더욱 특색 있는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시책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하고 연계하여 고품격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안면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해변경관 등의 천연관광자원의 보전을 통해 서해안 만의 개성 넘치는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크루즈 관광과 함께 경비행장, 관광레저형 헬기장 설치 등 다양한 레저기능을 수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병술만 해수호 수변공원, 해수 스파테라피센터 등 4계절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하며, 세 번째는 대부초지 관광지구와 연계한 농촌관광, 에코투어리즘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대표적인 5도 2촌형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바다목장화 사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과 해양박물관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삶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1세기  
복합형  
국제해양  
관광 도시

1. 자연 친화적인 국제 해양휴양 도시

2.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도시

3. 5都 2村을 통한 선진휴양 도시



〈안면읍 발전구상도〉